

조형우·조정호 “광주産 배터리, SK서 오래 달려볼랍니다”

프로 야구선수 2명 추가 배출...광주일고 명실상부 ‘프로의 산실’
조 듀오, 투수·포수로 황금사자기·전국체전 2관왕 합작
SK 선 입단 김창평과 젊은 피 주목...롤모델, 최정·김광현 꼽아

광주일고의 특급 배터리가 SK 와이번스에서 재결합한다.

최근 2021 KBO 신인드래프트를 통해서 ‘프로의 산실’ 광주일고는 KIA 우선지명을 받은 이의리에 이어 두 명의 프로 선수를 추가로 배출했다.

1라운드에서 포수 조형우의 이름이 먼저 불렸다. 7라운드에서는 광주일고 출신의 동강대 투수 조정호가 호명됐다.

조정호와 조형우는 광주일고가 황금사자기·전국체전 2관왕을 이뤘던 2018년 한솥밥을 먹은 선배였다.

프로를 목표로 2년제 대학을 선택했던 조정호는 스피드로 어필하면서 마침내 프로의 꿈을 이뤘다. 1학년이었던 조형우는 올 시즌 주정수로도 역할을 하면서 1라운드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이 나란히 SK로 가게 되면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김창평과 함께 ‘광주일고 신예 3인방’이 ‘비룡 군단’의 새로운 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배터리는 톱메이트이기도 했다. 그만큼 재회의 기쁨은 더 크다.

조정호는 “요즘 모교에서 형우와 똘을 만들고 있다”며 “다시 같이 야구를 하게 돼서 진짜 좋다. 투수를 편하게 해주는 포수다. 고등학교 때도 피칭을 많이 했는데 쉬는 날에도 와서 도와주기도 했다”고 후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형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같이 가게 돼서 지경기도 하다(웃음). 학교 다닐 때도 같이 붙어 다녔고 형이 광주에 있어서 자주 봤다. 이야기도 하고 물어볼 수 있는 형이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곳에서 지낸 2년 두 사람은 부쩍 성장했다.

조정호는 키도 커졌고 스피드도 늘었다. 192cm 장신인 조정호는 대학에서 최고 157km의 스피드를 찍었다.

다시 공을 받은 조형우는 “이렇게 빠른 볼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놀라기는 했다”며 “고등학교 때와는 확실히 많이 다르다. 나도 그만큼 성장해서 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웃었다.

부쩍 힘이 붙은 후배는 조정호가 짚는 최고의 포수다.

조정호는 “1학년 때도 기술적인 것은 좋았는데 힘이 부족했다. 이제는 진짜 체격도 좋고 야구도 잘한다. 내가 뭐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다”고 말했다.

프로에서 승리를 합작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두 사람.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야수 김창평이 공을 잡는 장면도 있다. 조정호에게는 친구, 조형우에게는 ‘캡틴’이다.

조정호는 “지명되자마자 연락왔다. 와서 같이 잘해보자고 했다. 창평이도 있고, 형우도 있고 잘 맞는 곳에 가게 된 것 같다”고 웃었다.

잘 맞는 팀 SK, 가장 좋아하는 선수도 김광현이다.

조정호는 “어렸을 때부터 김광현 선배를 좋아했다. 내 나이 때 전성기를 보았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으니까 서진용 선배의 포크볼을 배워보고 싶다”며 “해외에서는 리베라를 가장 좋아했다. 투 피치로서도 10년 넘게 전성기를 보냈다.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조형우는 가장 만나고 싶은 선배로 최정을 꼽았다.

조형우는 “홍련왕 출신인 최정 선배님 만나서 홈런 치는 능력, 그런 것을 많이 배우고 싶다”며 “또 이재원 선배님, 포수 선배님들 어떻게 하면 1군에 오래 남을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언급했다.

잊지 못할 장면의 주인공 박경완 감독대행과의 만남도 기다려진다.

조형우는 “KBO 레전드시다. SK 왕조시절에 야구 많이 챙겨봤었다”며 “김광현 선배님이 90도로 인사드리는 것을 보고 감동 많이 받았다. 저도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창평은 2010년 한국시리즈에서 팀 우승을 확정된 뒤 마운드로 달려오는 오던 포수 박경완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감동을 선사했었다.

발이 느려서 시작하게 됐던 포수. 다시 태어나도 조형우는 포수를 하겠다고 말한다.

조형우는 “삼촌이 학교 코치님(송정동초 정재열 코치)이라 1학년 때부터 야구를 접했다. 발이 느려서 포수를 했는데 다시 태어나도 포수를 할 것 같다. 불배합을 통해 타이밍 뺏을 때 희열을 느낀다.



SK에서 다시 배터리를 구성하게 된 포수 조형우(왼쪽)와 투수 조정호가 광주일고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루 저지할 때도 기분이 좋다”며 “양외지 선배님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한 포수가 되고 싶다. SK에서 일찍 뽑아주셨다. 능력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SK의 미래가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 키즈로 야구를 시작한 조정호는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다. 조정호는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야구를 처음 알게 됐다. 야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셨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야구를 하고 싶었

는데 형편이 좋지 못해서 못하셨다. 부모님께서 믿고 응원해주셨다”며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믿고 볼 수 있는 투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가을잔치 후보들, 양보 없는 전쟁 시작

T 타이거즈 전망대

지난주 2승 4패...5강 진입 실패
이번주 키움·두산과 주중 6연전
낮 경기, 선수 컨디션·변수 주의

KIA 타이거즈의 '수도권 6연전' 결과에 순위싸움의 방향이 바뀐다.

약재로 시작해 극적인 승리로 끝난 지난 한주였다. KIA는 브룩스 가족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으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한 주를 시작했다.

가장 믿음직한 선발이 빠진 마운드에 임기영과 이민우의 부진이 더해지면서 마운드 대란이 발생했다. 임기영이 키움전 2이닝 8실점, 이민우가 롯데전 0.1이닝 7실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닝' 고민 속 마운드 운영에 비상이 걸렸고, 중심타선의 폭발력도 떨어졌다. 특히 나지완이 지난 주 6경기에서 3안타에 그치면서 순위 싸움에 제동이 걸렸다.

다행히 KIA는 27일 연장 10회말 타진 김태진의 끝내기 안타로 롯데에 2-1 승리를 거두며 2승 4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새로운 한 주는 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

2연전 일정이 마무리되고 3연전이 재개되면서 원정길에서 두 팀을 만나게 된다. 상대는 2위 키움 히어로즈와 5위 두산 베어스다.

두 팀도 순위 싸움에 비상이 걸리면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키움은 1위 NC와 5경기 차까지 벌여졌고, 두산도 4위 LG보다는 6위 KIA와의 거리가 가깝다.

승리를 양보할 수 없는 '가을잔치' 후보들의 승부다. 여기에 KIA가 두산에 3승 9패로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주말 잠실 경기의 결과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다.

'연휴'라는 변수도 있다.

■KBO중간순위 (28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116	71	3	42	0.0
2	키움	124	71	1	52	5
3	KT	117	66	1	50	6.5
4	LG	119	65	3	51	7.5
5	두산	119	62	4	53	10
6	KIA	115	61	0	54	11
7	롯데	116	58	1	57	14
8	삼성	118	52	2	64	20.5
9	SK	120	40	1	79	34
10	한화	118	36	2	80	36.5

윌리엄스 감독은 이번 6연전을 앞두고 “캡츠 치르는 기분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29일 야간 경기 이후 남은 5경기는 모두 오후 2시 경기로 진행된다. 연휴와 일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개시 시간이 오후 2시가 됐다.

낮경기인 만큼 이에 맞춰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집중력이 중요하다. 주말 3연전 낮경기의 예상치 못한 변수도 주의해야 한다.

해와 하늘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해가 질 무렵 공이 하늘에 가려지기도 하고 햇빛에 시야 방해도 발생할 수 있다.

KIA는 27일 하늘이 도운 행운의 3루타를 발판 삼아 끝내기 승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반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공 하나하나에 선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전상현이 27일 마운드에서 피칭을 하며 복귀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끝낸 점은 KIA에는 호재다. 양현종도 앞선 등판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7.1이닝을 소화해주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반갑다.

한편 김선빈이 이번주 6경기에 모두 출전하면 125번째 1100경기 출장 기록을 이루게 된다.

터커(29홈런·93타점)는 77번째 '30홈런-100타점' 자리를 놓고 NC 나성범(29홈런·96타점), 키움 김하성(27홈런·98타점)과 경쟁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파이널라운드 데뷔전, 포항에 3-5 역전패
0-2서 펠리페·윌리안·엄원상 역전극 연출
선수들 수적 열세 극복 못해...다음 경기도 차질

광주FC의 포항전 첫승 도전이 보이지 않은 벽에 막혔다.

광주는 지난 27일 2020 K리그1 2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 포항스틸야드로 갔다. 이 경기는 광주의 역사적인 파이널라운드 데뷔전이었다. 유일하게 승이 없는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했던 경기, 후반 25분까지는 명승부였다.

0-2로 뒤진 후반 10분 펠리페가 잡자던 광주 공격에 불을 붙였다.

김주공의 패스를 받은 펠리페가 상대 수비진 사이에서도 침착하게 왼발 슈팅을 날리며 골망을 흔들었다.

16분에는 앞서 골대 불운에 울었던 윌리안이 주인공이 됐다. 왼쪽 측면에서 감아 찬 공이 다시 한번 골대를 때렸지만, 이번에는 공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엄원상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윌리안과 김주공의 슈팅이 수비수 맞고 불발됐지만 흐른 공을 잡은 엄원상이 왼발로 시원한 포물선을 그렸다. 포항 송민규와 '영플레이어상' 경쟁 중인 엄원상의 카운터 펀치였다.

광주의 뜨거운 공세 속 포항도 만만치 않았다. 2분 뒤 선제골 주인공 일류첸코가 광주 수비를 뚫으면서 승부를 3-3 원점으로 되돌렸다.

K리그 팬들을 환호케하는 멋진 승부였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K리그 팬들의 입맛이 개운치 못했다.

연달아 나온 레드카드 두 장에 다시 한번 광주는 달갑지 않은 판정 논란 주인공이 됐다.

후반 31분 광주는 페널티킥으로 포항에 3-4 재역전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광주는 수적 열세에 빠졌

다.

앞서 포항 일류첸코가 광주 진영에서 골키퍼 이진형을 앞에 두고 넘어졌다. 수비진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과격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 헐리우드 액션에 가까운 장면이었지만 레드 카드는 광주 수비수 홍준호에게 향했다.

후반 35분 다시 한번 광주가 발을 동동 굴렀다.

공을 잡은 펠리페가 움직이는 순간 포항 김광석이 뒤에서 어깨를 잡아당겼다. 펠리페가 양손을 펼쳐 심판에 어필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상황에서는 빛의 속도로 레드 카드가 나왔다.

펠리페가 몸을 붙잡고 있던 김광석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했다며 퇴장 징계를 받았다.

광주는 남은 시간 9명의 선수로 외로운 싸움을 했고 경기는 3-5 역전패로 끝났다.

광주는 지난 21라운드 상주전에서도 '핸드볼 반칙' 논란으로 속앓이를 했다.

K리그 팬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았던 장면, 당시 심판평가위원회 결론은 '근거 부족'이었다.

당시 심판평가소위원회는 "상주 이근호의 핸드볼 여부는 영상 분석으로도 명확하게 볼이 손에 맞은 근거가 부족하여 VAR체크 후 득점인정 판정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광주는 이 경기 패배에도 22라운드 성남전 극적인 승리와 함께 기적 같은 파이널A 진출을 달성했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된 광주는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부터 씁쓸한 경험을 해야 했다.

경기가 끝난 뒤 박진섭 감독은 오히려 '내탓이오'를 외쳐 광주팬들의 설움은 더 커졌다.

박진섭 감독은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펠리페

다독여야 했는데 선수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2명이 나 퇴장을 당했다. 내 잘못인 것 같다”며 “후반 들어 우리만의 플레이를 선보였고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수비 실수로 실점을 한 부분은 아쉽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공-수의 핵심 선수가 퇴장당한 만큼 다음 일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